

碩士學位論文

中學校 統一教育의 改善 方案에 관한 研究

- 濟州道 中學生의 統一意識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韓 錫 祉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 淳 協

2003 年 8 月

# 中學校 統一教育의 改善 方案에 관한 研究

- 濟州道 中學生의 統一意識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韓 錫 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 年 5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淳協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 年 7 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 中學校 統一教育의 改善 方案에 관한 研究

- 濟州道 中學生의 統一意識을 中心으로 -

金 淳 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韓 錫 祉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통일환경 속에서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의식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반응 결과를 SPSS 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영역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 약 절반 정도의 학생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합의 통일 방식을 원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지만, 통일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삶의 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북한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과 실상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고,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도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셋째,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통일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도덕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통일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의 교사 설명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생 중심의 토론 방식 수업을 원하고 있다. 한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의식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교육과 통일의 필요성 교육을 통일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통일의식의 형성을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통일 이후의 사회가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득과 혜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덕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통일교육을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북한 및 통일 문제를 각 교과에 맞게 다루는 범교과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또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남북은 여러 가지 견해나 조건의 차이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구조의 이중성 측면을 이해시켜 통일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과 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명감 그리고 학교측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목 차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4
1.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개념 및 관계 .....	4
2. 통일교육의 체계 .....	9
III. 연구 방법 .....	17
1. 조사 도구 .....	17
2. 연구 대상 .....	18
3. 자료 처리 .....	19
IV. 연구 분석 및 논의 .....	20
1.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 .....	20
2. 북한에 관한 의식 .....	31
3.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 .....	41
4.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문제점 .....	51
V. 결론 :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	58
<input type="checkbox"/> 참고문헌 .....	64
<input type="checkbox"/> Abstract .....	67
<input type="checkbox"/> 부록 .....	69

## 표 목 차

<표 1>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 .....	12
<표 2> 질문지의 내용 구성 .....	18
<표 3> 조사대상자 분포 .....	19
<표 4>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 .....	21
<표 5>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23
<표 6>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	23
<표 7>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	24
<표 8> 통일의 방법 .....	25
<표 9> 통일국가의 체제 .....	26
<표 10> 통일 후 예상되는 삶의 변화 .....	28
<표 11> 통일 후의 문제점 .....	28
<표 12> 통일의 장애요인 .....	30
<표 13> 통일의 선결 과제 .....	31
<표 14> 북한에 대한 관심도 .....	32
<표 15> 북한에 대한 관심 분야 .....	33
<표 16> 북한의 실상에 관한 인지도 .....	34
<표 17>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 경로 .....	35
<표 18> 북한에 대한 인식 .....	37
<표 19>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견해 .....	37
<표 20> 북한의 학생과 주민 등 보통 사람에 대한 견해 .....	38
<표 21>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에 대한 평가 .....	39
<표 22>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견해 .....	40
<표 23>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 .....	43
<표 24> 학교 통일 및 북한 관련 수업의 만족도 .....	43
<표 25>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 .....	44
<표 26> 교과별 통일교육의 실태 .....	45
<표 27> 학교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수업의 방식 .....	46
<표 28> 학교에서 수업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	48
<표 29>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	48
<표 30>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50
<표 31> 학교 통일교육에서의 강조할 점 .....	50

# I. 서론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바로 민족의 분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민족과 체제의 분열로 '6·25'라는 우리 민족 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지금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군사력이 상호 대립하면서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남과 북에는 분단 상황을 구실로 한 독재 체제가 형성되어 20세기 후반기의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었다. 또한 남북간의 군사·외교적인 대립과 경쟁으로 민족의 자산과 역량이 낭비되고, 남북간의 격심한 사회·문화의 구조적 차이로 민족 내부의 이질성은 더욱 심화되어 왔던 것이 분단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그 효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6·15 공동선언과 그 후속책으로 이루어진 이산 가족의 상봉,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으로 한반도에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와는 달리 중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남북 통일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며, 우리 사회가 선진 민주 사회로 도약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임에도, 최근의 연구 자료<sup>1)</sup>를 살펴

---

1) 통일부(2002),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통일부, pp.25~26. 연구에서 중학생들은 57.5%만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집단별 통일에 대한 관심에서 가장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2002년 6월 민주평화통일사무처에서 실시한 중고교생 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59.1%만이 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든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의외로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요즘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에도 있지만, 그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져 온 통일교육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동안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통일 교육은 반공 교육, 통일·안보 교육, 통일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그 명칭이 변화되어 왔으나, 교육의 면면을 보면 공산주의와 북한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중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적대감과 불신 의식을 심어주어 북한 주민들을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한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고 대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에 무관심하고 또 통일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 통일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민족의 역량이 줄고 있다는 의미로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 과업의 승계 세대인 청소년 세대에게 통일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면서 통일의 의지를 고취하게 하고,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비판적인 능력을 심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학교 통일교육은 통일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남북한의 현실과 통일의 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다. 동시에 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학생들에게 통일의 의지와 필요성을 함양하게 하고, 통일 이후 민족의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시대의 주역인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의식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들의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새로운 통일환경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통일의식의 형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도 중학교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 북한에 관한 의식 및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의식의 일반적인 경향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셋째, 통일의식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통일환경에 부응하는 건전한 통일의식의 형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개념 및 관계

#### 1) 통일의식의 개념

최근 남북 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의 개념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된다. 크게 살펴보면 정치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 통일은 여러 개의 체제, 집단, 정치 체계가 하나의 국가 형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통일은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과 역할 수행이 상충과 갈등 그리고 긴장 없이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sup>2)</sup> 즉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 뿐 아니라, 이질적인 가치와 문화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양측이 말하는 통일은 어떠한 표현을 쓰든 본질에 있어서는 분단국의 재통일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국의 재통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 통합과는 성질을 달리한다.<sup>3)</sup> 즉 우리의 통일은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개 이상의 국가·사회가 하나가 되는 통일이 아니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이 다시 재결합하려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민족의 재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복고적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극적 차원의 단순한 재통일이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새로운 통일을 말한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

2) 최현섭(1992), “사회 문화적 시각에서 본 통일교육”, 「남북한 교류협력의 오늘과 내일」,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p.35.

3) 이상우(1984), “민족통일의 과제”,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p.160.

로의 회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창조적인 작업이다.<sup>4)</sup> 다시 말해 반세기 이상 상이한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 왔던 남북한이 현재의 조건과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하나의 새로운 민족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을 의미한다. 대체로 우리가 추구하려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sup>5)</sup>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통일은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국토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민족의 공동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이질화된 문화를 극복해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sup>6)</sup>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까지도 융화가 되어 정신적인 면의 통합까지 이루는 것을 말한다.

통일의식은 ‘통일’이라는 말과 ‘의식’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겨난 개념이다. 의식은 개인, 집단, 민족 등이 사회·역사 속에서 생활하거나 생존하는 동안에 형성되는 사물에 대한 견해, 사상, 감정을 의미하거나 또는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인 감정, 의식, 정서, 신념, 관심, 지식, 의지, 가치, 태도 등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통일의식은 통일문제와 통일의 대상인 남북한 서로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 의식, 정서, 신념, 관심, 지식, 의지, 가치, 태도 등의 총체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방법과 과정, 통일

---

4) 통일교육원(1999),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p.24.

5) 통일부(2002), 「2002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 p.8.

6) 상계서, p.8.

국가의 미래상, 통일의 장애요인과 과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민족공동체 의식, 북한의 지원에 대한 견해 등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심, 지식, 감정, 의지, 태도 등을 말한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의식은 가변적이어서 통일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통일의식도 서서히 변하는 복잡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통일의식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에 의해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2) 통일교육의 개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그 동안 반공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그 명칭이 변화되어 왔으며, 명칭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러한 통일교육에 관한 논의의 많은 부분은 통일교육에 관한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규정하는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본 목표와 교육 단계별 세부목표 그리고 교육내용과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통일교육은 비로소 정립되었다.

우리 나라 헌법 제4조와 교육 기본법 제2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을 말한다.”<sup>7)</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통일교육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여 민주적 통일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을 심어주고 통일 전후 과정에 대한 판단력을 제고하고 통일과정에 동참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배양하는 교육<sup>8)</sup>이라고

7) 상계서, p.2.

8) 최병모(2001), “통일교육의 체계적 접근과 운영 방안”, 「시민교육연구」 제32집, 한국사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영원인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의 두 측면이 함께 다루어지는 교육이다. 동시에 통일교육은 북한의 위협적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갖추도록 통일 안목을 심어주는 교육이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되(통일의 측면), 건전한 안보관도 동시에 추구하는(안보의 측면) 이중 개념구조를 가진다<sup>9)</sup>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이중 구조 문제는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대두되면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부분이며,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자, 평화통일을 함께 이루어 갈 동반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쟁 억지 수준의 군사적 안보만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심어주어 민족공동체의식의 회복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폭력에 의한 통일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통일 감상주의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안보’와 ‘통일’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안보’와 ‘통일’을 연속 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개념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때의 매개 개념이 바로 ‘평화’이다.<sup>10)</sup> 통일교육은 안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의 모습을 줄여나가고(Peace-Keeping

---

회과교육학회, p.358.  
9) 최병모(2000),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 방안”, 「새마을 연구」 제8권, 한국교원대, p.76.  
10) 한석지(1994),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9집, 제주대학교, p.491.

: 평화유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민족으로서의 북한의 모습(Peace-Marking : 평화만들기)은 키워나가는 교육이다.<sup>11)</sup> 부연하면 통일교육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바탕 위에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입체적이고 동태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관계

통일은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태이다. 통일은 단순한 국토의 통합과 체제의 통합을 넘어서 전 사회 분야에서 동질성을 회복하여 체제 융합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일은 남과 북이 온 민족이 평화와 안정 속에 공존 공영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 역사의 창조 과업이다.

결국 통일이란 국토 분할과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화적 측면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국토 통일, 국권 통일, 국민 통합인 동시에 가치·의식의 화합을 이루어 새로운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통일의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문제와 통일의 대상인 남북한 서로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 의식, 정서, 신념, 관심, 지식, 의지, 가치, 태도 등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통일의식은 가변적이어서 통일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통일의식도 서서히 변하는 복잡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의식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함양시키는 것이 통일의 첫걸음이다. 즉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할 줄 알고,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11) 고성준(2003),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초·중·고 통일교육에 대한 워크숍 주제 발표문, p.19.

12) 임용경(1997),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방향”, 인천교육대학교 통일교육연구소, pp.76~77.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을 가지며, 남북한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남북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sup>13)</sup>을 양성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해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바르고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이다. 교육은 교사가 바람직한 인간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또한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 보다 나은 의식, 태도, 행위 등을 학습하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교육은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뜻한다.<sup>14)</sup> 이러한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통일의식을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의식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함양시키는 내용과,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 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sup>15)</sup>

## 2. 통일교육의 체계

### 1)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

통일교육은 급변하는 국내외의 변화에 따른 통일 환경의 변화에 발을 맞추어

---

13) 차우규(2002),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통일부 주최 제5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통일부, pp.16~19.

14)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p.93.

15) 이정희 외(1997), 「민족 통일론」, 형설출판사, p.39.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완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즉 새로운 통일교육은 단순히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발상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접근 모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학생들의 건전한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은 우선 기본 방향의 측면에서 과거의 안보·통일 지향에서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sup>16)</sup> 종래의 통일교육은 냉전이라는 통일환경 속에서 전개되다 보니, 남북한이 서로 자신의 이념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이념을 비판하고, 각자 자신들의 이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남북의 이질화 및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민족의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상호 불신과 적대감 해소를 통한 화해와 협력 의식을 형성시켜야 한다. 통일을 성취하고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면, 지금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여 화해와 협력 의식을 함양시키는 통일교육이 요청된다.

둘째, 통일교육은 정치, 이념적 접근에서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과거의 통일교육은 정치·이념적 접근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미화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특히 북한의 현실에 대한 교육에서 민족동질성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질성을 크게 부각시켰다.<sup>17)</sup>

독일이 통일 이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정치·이념적 통합뿐만 아니라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있어 이질성의 극복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8)</sup>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의 모형은 접근

16) 한국교육개발원(1999), 「통일교육의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07.

17) 상계서, p.208.

18) 상계서, p.209.

방법에 있어서 정치체제나 이념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생활상, 사회 구조와 가치관 등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 사회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이념, 체제 중심에서 생활과 문화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체제나 이념을 비교·분석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등을 다루어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를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문제이므로, 통일교육은 생활 체험적 소재를 선정하여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에 관련되는 내용, 일상 생활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차이점,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 생활을 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실천적인 차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9)</sup>

넷째,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규범적, 정의적인 접근보다는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중시하는 규범적 접근과, 제한된 정보와 자료를 통한 교사의 일방적 전달의 공급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sup>20)</sup>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규범적인 접근과 더불어 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현실과 통일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태도와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21)</sup> 또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교수·학습과,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 등 교육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논의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22)</sup>

---

19) 최병모(2000), 전개논문, p.78.

20) 상계서, p.209.

21) 상계논문, pp.78~79.

22) 상계서, p.208.

<표 1>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

	구 모형		신 모형
기본방침	안보·통일 지향 : 안보와 체제 우위를 확인하는 교육	⇒	평화·통일 지향 :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교육
접근방법	정치, 이념적 접근	⇒	개방적, 다원적 접근
교육주체	정부 중심	⇒	정부·민간 협력 체제
교육목표	정치·제도적 통일 지향	⇒	사회·문화적 통일 지향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념과 체제 중심</li> <li>○ 통일정책 및 통일미래</li> <li>○ 비교 우위적 접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문화 중심</li> <li>○ 평화 정착과 통일 준비</li> <li>○ 문화 특수적 접근</li> </ul>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적 접근</li> <li>○ 공급자 중심의 교수·학습</li> <li>○ 제한된 정보, 자료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적, 객관적 접근</li> <li>○ 수요자 중심의 교수·학습</li> <li>○ 다양한 정보, 자료 활용</li> </ul>

이상에서 논의했던 사항 중 중학생들의 바르고 건전한 통일의를 함양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다음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 2) 통일교육의 목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할 때는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통일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통일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전한 통일의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통일교육의 목표를 통일부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sup>23)</sup>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통일방식을 합의에 의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민족공동

23) 통일부(2002), 전개서, pp.2~4.

체의식은 통일 이후에 민족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정치·경제·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리 민족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고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및 태도의 형성, 즉 바람직한 통일관의 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한다. 국제사회의 탈냉전 추세와 남북간의 국력 격차의 심화로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된 통일환경에 맞추어 현재의 분단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전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관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 실현 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남북한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은 현재와 같은 이질적 체제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무엇보다 먼저 화해·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공존의 단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의 지출과 필요 이상의 국력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민족 역량의 선양과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적극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 3)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 내용의 기본 체계는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남북한의 평화 공존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향후 통일교육은 북한 체제의 유지·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남북한의 평화·교류·협력 달성에 교육 내용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 구성이라야 한다.

첫째,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간 평화 정착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움으로써 평화통일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여 이상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이 균형 있게 형성되도록 한다. 아울러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문제를 개인 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절실한 문제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sup>24)</sup>

둘째,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남북의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종래의 남북 대결 상황에서 강조되었던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북한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sup>25)</sup> 다시 말해 남북 사이의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협력함으로써 평화 체제를 정착시켜 민족공동체의 복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기존의 통일 의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주제나 소재를 선정할 경우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자신들이 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자의 강의나 교육자료 등을 매개로 자신들이 판단하고 논리

---

24) 최병모(2001), 전개논문, p.370.

25) 한국교육개발원(1999), 전개서, p.21.

를 개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sup>26)</sup>

넷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통일은 제도적 통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될 민족공동체의 삶을 충분히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정치체제의 구조적 통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이질화된 두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간의 의식과 사고방식의 이질화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의 치유가 또한 중요하다.<sup>27)</sup>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때,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일상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 규범문화 등에서 찾아야 한다. 또 북한의 현실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과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남북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4) 통일교육의 방법



통일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학습의 방법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 사회와 국내·외적인 통일환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하고, 또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논의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가치탐구식 토론학습과 체험학습 및 첨단 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8)</sup>

첫째, 통일교육은 객관적 접근과 열린교육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6) 상계서, p.22.

27) 상계서, p.22.

28) 상계논문, pp.372~373.

통일교육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 정확성을 기하고, 가치 면에서 특정 체제나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좋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주장과 개방적인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열린교육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 학생 중심의 토론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활용이 요구된다. 통일교육은 강의뿐만 아니라 신문, TV, 영화, 컴퓨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통일의식과 통일 준비의 태도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과서나 교재, 그리고 수업 지도안을 중심으로 한 정태적인 통일교육 자료로부터 탈피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탐구하고, 나아가 창조해 낼 수 있는 자료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에 따른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앞으로 본 논문의 전개는 통일의식의 개념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에 의해 질문지를 구성해,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의식의 일반적인 경향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려고 한다. 이어서 결론에서는 통일의식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과 조사 연구를 통한 경험적 접근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는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개념 및 관계와 통일교육의 체계를 모색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통해서 는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통일의식의 형성을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통일의식 질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하여 실시했던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질문지(1999년 7월), 제주도교육청에서 통일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던 질문지(2000년 6월), 그리고 통일부에서 의뢰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행한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연구” 질문지(1999)에서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추출하고, 또 연구 목적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새로 작성해 만들었다.

질문지의 문항은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 문항과 북한에 관한 의식 문항 그리고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 문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질문지의 내용 구성

영역	질문 주제	질문 내용	문항번호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당위성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1
		통일에 대한 견해와 당위성	2, 3, 4
	통일의 방법	통일의 방법	5
	통일 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의 체제	6
		통일 후 삶의 질의 변화와 문제점	7, 8
통일의 장애 요인과 과제	통일의 장애 요인과 선결 과제	9, 10	
북한에 관한 의식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인지	북한에 대한 관심도와 분야	11, 12
		북한 실상에 관한 인지도와 인지 경로	13, 14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인식	15, 16, 17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정도	18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19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	통일교육의 효과와 실태	통일교육의 효과와 만족도	20, 21, 22
		통일교육의 실태	23, 24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교육의 방향	25, 26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강조할 점	27, 28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제주도 중학생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각 시·군의 인구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시내 6개 학교 6학급, 서귀포시내 2개 학교 2학급, 남제주군 관내 2개 학교 2학급, 북제주군 관내 2개 학교 2학급 등 총 12개 학교 12학급의 48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집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표집 대상으로 선정된 각 학교를 방문해 3학년 담임이나 사회, 도덕과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에 응하게 하였다. 그 결과 총 4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66부를 회수함으로써 97.08%의 회수율을 보였다. 질문지 응답 결과를 통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문항에 동일 번호를 일률적으로 선택하거나, 여러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아 성의 없는

응답으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질문지 5부는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 연구 대상 인원은 461명이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 분포

구 분		배부수	회수	표본 빈도(%)
성별	남학생	240	232	229(49.7)
	여학생	240	234	232(50.3)
지역별	제주시	240	226	222(48.2)
	서귀포시	80	80	79(17.1)
	남제주군	80	80	80(17.4)
	북제주군	80	80	80(17.4)
합계		480	466(97.08%)	461(100.0)

###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개개의 질문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코딩하여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항목별로 기본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배경 변인별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위한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과 지역별로 구분해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IV. 연구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제주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도구에서 제시한 반응 결과를 영역별 문항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분포와 반응 경향을 살펴보고 그 반응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논의하며 둘째, 표집 대상의 각 배경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배경 변인을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분석하였다.

### 1.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

통일의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당위성, 통일의 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의 장애 요인과 과제 등으로 크게 나누어 총 10문항을 조사·분석하였다.

####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당위성

#####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남북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남북한 통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45.5%만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중도적인 입장 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일을 할 필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 결과는 각각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5>에서와 같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통일을 할 필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20%밖에 안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과거의 조사와 비교해 조사대상이나 질문지 문항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급격한 통일환경의 변화가 통일의 열기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통일이 필요 없다거나, 통일에 무관심한 학생이 많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미래에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지속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지역별로는 산북지역(제주시, 북제주군)이 산남지역(서귀포시, 남제주군)에 비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p < .05$ ).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응답자들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한민족이기 때문에’(33.6%), ‘민족의 번영을 위해’(31.5%)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상당수 학생들이 정의적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다.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통일을 할 필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남북한의 경제적, 사상적 차이로 잦은 갈등이 일어난다.’(44%),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29.9%)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통일을 원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계	$x^2$	df	p
성별	남		150 (65.5)	19 (8.3)	45 (19.7)	15 (6.6)	229 (100.0)	50.047	3	*** .000
	여		88 (37.9)	73 (31.5)	59 (25.4)	12 (5.2)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116 (52.3)	54 (24.3)	39 (17.6)	13 (5.9)	222 (100.0)	18.029	9	* .035
	서귀포시		37 (46.8)	19 (24.1)	21 (26.6)	2 (2.5)	79 (100.0)			
	남제주군		41 (51.3)	8 (10.0)	26 (32.5)	5 (6.3)	80 (100.0)			
	북제주군		44 (55.0)	11 (13.8)	18 (22.5)	7 (8.8)	80 (100.0)			
합계			238 (51.6)	92 (20.0)	104 (22.6)	27 (5.9)	461 (100.0)			

(\* p<.05, \*\*\* p<.001)

① 통일이 되어야 한다.

②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③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④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표 6>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

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2$	df	p
성별	남		54 (36.0)	51 (34.0)	3 (2.0)	15 (10.0)	21 (14.0)	6 (4.0)	150 (100.0)	7.509	5	.185
	여		26 (29.5)	24 (27.3)	3 (3.4)	14 (15.9)	20 (22.7)	1 (1.1)	88 (100.0)			
지역별	제주시		39 (33.6)	37 (31.9)	4 (3.4)	15 (12.9)	19 (16.4)	2 (1.7)	116 (100.0)	13.582	15	.557
	서귀포시		11 (29.7)	13 (35.1)		6 (16.2)	5 (13.5)	2 (5.4)	37 (100.0)			
	남제주군		16 (39.0)	7 (17.1)	1 (2.4)	7 (17.1)	8 (19.5)	2 (4.9)	41 (100.0)			
	북제주군		14 (31.8)	18 (40.9)	1 (2.3)	1 (2.3)	9 (20.5)	1 (2.3)	44 (100.0)			
합계			80 (33.6)	75 (31.5)	6 (2.5)	29 (12.2)	41 (17.2)	7 (2.9)	238 (100.0)			



고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합의통일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남학생들의 경우 66.5%인 반면에, 여학생들은 56.5%로 나타나고 있다(p<.01).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산남지역 학생들이 산북지역 학생들에 비해 점진적이고 평화적 합의통일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통일의 방법

변인		항목					계	x <sup>2</sup>	df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152 (66.4)	43 (18.8)	9 (3.9)	7 (3.1)	18 (7.9)	229 (100.0)	19.355	4	** .001
	여	131 (56.5)	36 (15.5)	4 (1.7)	14 (6.0)	47 (20.3)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135 (60.8)	33 (14.9)	8 (3.6)	10 (4.5)	36 (16.2)	222 (100.0)	14.485	12	.271
	서귀포시	50 (63.3)	21 (26.6)	2 (2.5)	1 (1.3)	5 (6.3)	79 (100.0)			
	남제주군	52 (65.0)	12 (15.0)	1 (1.3)	4 (5.0)	11 (13.8)	80 (100.0)			
	북제주군	46 (57.5)	13 (16.3)	2 (2.5)	6 (7.5)	13 (16.3)	80 (100.0)			
합계		283 (61.4)	79 (17.1)	13 (2.8)	21 (4.6)	65 (14.1)	461 (100.0)			

(\*\* p<.01)

- ①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합의 통일
- ② 일방적인 방식의 흡수통일
- ③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
- ④ 국제적 합의(유엔)에 의한 통일
- ⑤ 잘 모르겠다.

### 3) 통일국가의 미래상

#### (1) 통일국가의 체제

통일국가의 체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된 국가의 체제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는 <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통일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6.5%가 통일 이후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하였으나, 37.1%의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고,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의 1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중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사실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과 통일 이후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북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재원은 필연적으로 남한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제주시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 후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학생들(43.6%)이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남북간의 체제와 문화의 차이, 빈부의 격차, 실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사회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교육은 여러 분야를 좀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 $p<.01$ )과 지역별( $p<.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제주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시·군 학생들이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통일 후 예상되는 삶의 변화

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df	p
성별	남		36 (15.7)	70 (30.6)	63 (27.5)	48 (21.0)	12 (5.2)	229 (100.0)	30.859	4	*** .000
	여		15 (6.5)	47 (20.3)	59 (25.4)	76 (32.8)	35 (15.1)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24 (10.8)	53 (23.9)	55 (24.8)	59 (26.6)	31 (14.0)	222 (100.0)	19.692	12	.073
	서귀포시		5 (6.3)	20 (25.3)	26 (32.9)	24 (30.4)	4 (5.1)	79 (100.0)			
	남제주군		7 (8.8)	22 (27.5)	23 (28.8)	25 (31.3)	3 (3.8)	80 (100.0)			
	북제주군		15 (18.8)	22 (27.5)	18 (22.5)	16 (20.0)	9 (11.3)	80 (100.0)			
합계			51 (11.1)	117 (25.4)	122 (26.5)	124 (26.9)	47 (10.2)	461 (100.0)			

(\*\*\* p<.001)

- ① 매우 나아질 것이다.                      ② 대체로 나아질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대체로 어려워 질 것이다.                ⑤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표 11> 통일 후의 문제점

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⑤	합계	$\chi^2$	df	p
성별	남		42 (18.3)	48 (21.0)	41 (17.9)	95 (41.5)	3 (1.3)	229 (100.0)	16.263	4	** .003
	여		64 (27.6)	24 (10.3)	38 (16.4)	106 (45.7)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54 (24.3)	34 (15.3)	40 (18.0)	93 (41.9)	1 (0.5)	222 (100.0)	23.080	12	* .027
	서귀포시		16 (20.3)	9 (11.4)	16 (20.3)	36 (45.6)	2 (2.5)	79 (100.0)			
	남제주군		10 (12.5)	21 (26.3)	13 (16.3)	36 (45.0)		80 (100.0)			
	북제주군		26 (32.5)	8 (10.0)	10 (12.5)	36 (45.0)		80 (100.0)			
합계			106 (23.0)	72 (15.6)	79 (17.1)	201 (43.6)	3 (0.7)	461 (100.0)			

(\* p<.05, \*\* p<.01)

- ① 세금이 많아질 것이다.                      ②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을 것이다.  
 ③ 새로운 지역감정이 생길 것이다.            ④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⑤ 기타

#### 4) 통일의 장애 요인과 선결 과제

중학생들은 통일의 장애 요인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세요.”,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반응은 <표 12>, <표 13>과 같다.

먼저 통일의 장애 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남북한간 이념과 사상의 대립 21%, 남북의 경제적 차이 19.2%, 북한 지도층의 태도 15.3%, 남한 지도층의 태도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통일의 장애 요인이 이념과 사상의 문제, 남북의 경제적 차이, 북한 지도층의 태도,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대립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일의 장애 요인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민족 내부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p < .001$ ), 남학생들은 이념과 사상의 대립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우선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우선 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 지역 학생들의 경우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우선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군 지역의 학생들은 남북한의 이념과 사상의 대립을 우선 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가장 서둘러야 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냐는 질문에는 남북의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 29.3%,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상호 방문 23.8%, 북한의 개방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들은 남북의 다방면의 교류를 가장 중요한 통일의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의 선결 과제도 역시 통일의 장애요인과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민족 내부에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견해는 통일문제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구조의 이중성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우

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은 적지 않은 변화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 $p < .05$ ), 남학생들은 남북의 다방면의 교류를, 여학생들은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상호 방문을 통일의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지역 학생들과 군 지역 학생들은 남북한의 다방면의 교류를, 서귀포 지역 학생들은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상호 방문을 통일의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2> 통일의 장애 요인

변인		항목									계	$\chi^2$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별	남	49 (22.0)	38 (17.0)	25 (11.2)	18 (8.1)	33 (14.8)	18 (8.1)	12 (5.4)	26 (11.7)	4 (1.8)	223 (100.0)	29.347	8	*** .000
	여	46 (20.1)	21 (9.2)	11 (4.8)	8 (3.5)	54 (23.6)	14 (6.1)	23 (10.0)	43 (18.8)	9 (3.9)	229 (100.0)			
지역별	제주도	40 (18.5)	23 (10.6)	22 (10.2)	8 (3.7)	44 (20.4)	13 (6.0)	22 (10.2)	37 (17.1)	7 (3.2)	216 (100.0)	34.977	24	.069
	서귀포시	18 (22.8)	9 (11.4)	1 (1.3)	9 (11.4)	18 (22.8)	7 (8.9)	6 (7.6)	10 (12.7)	1 (1.3)	79 (100.0)			
	남제주군	14 (17.7)	18 (22.8)	5 (6.3)	4 (5.1)	12 (15.2)	8 (10.1)	3 (3.8)	11 (13.9)	4 (5.1)	79 (100.0)			
	북제주군	23 (29.5)	9 (11.5)	8 (10.3)	5 (6.4)	13 (16.7)	4 (5.1)	4 (5.1)	11 (14.1)	1 (1.3)	78 (100.0)			
합계		95 (21.0)	59 (13.1)	36 (8.0)	26 (5.8)	87 (19.2)	32 (7.1)	35 (7.7)	69 (15.3)	13 (2.9)	452 (100.0)			

(\*\*\*  $p < .001$ )

- |                   |                     |
|-------------------|---------------------|
| ① 남북한의 이념과 사상의 대립 | ②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대립    |
| ③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 ④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열의 부족 |
| ⑤ 남북의 경제적 차이      | ⑥ 주한 미군             |
| ⑦ 남북간의 여러 가지 다른 점 | ⑧ 북한 지도층의 태도        |
| ⑨ 남한 지도층의 태도      |                     |

<표 13> 통일의 선결 과제

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계	$x^2$	df	p
성별	남		75 (34.1)	39 (17.7)	2 (0.9)	49 (22.3)	38 (17.3)	17 (7.7)	220 (100.0)	14.814	5	* .011
	여		57 (24.8)	68 (29.6)	4 (1.7)	39 (17.0)	34 (14.8)	28 (12.2)	230 (100.0)			
지역별	제주시		65 (30.1)	45 (20.8)	3 (1.4)	46 (21.3)	40 (18.5)	17 (7.9)	216 (100.0)	12.307	15	.656
	서귀포시		17 (21.8)	23 (29.5)		18 (23.1)	10 (12.8)	10 (12.8)	78 (100.0)			
	남제주군		26 (33.3)	18 (23.1)	1 (1.3)	12 (15.4)	11 (14.1)	10 (12.8)	78 (100.0)			
	북제주군		24 (30.8)	21 (26.9)	2 (2.6)	12 (15.4)	11 (14.1)	8 (10.3)	78 (100.0)			
합계			132 (29.3)	107 (23.8)	6 (1.3)	88 (19.6)	72 (16.0)	45 (10.0)	450 (100.0)			

(\* p<.05)

- ① 남북의 경계를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
- ②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상호 방문
- ③ 주변 강대국에 협조 요청
- ④ 북한의 개방
- ⑤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방안 마련
- ⑥ 주한 미군의 철수



## 2. 북한에 관한 의식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에 관심과 인지, 북한에 대한 태도 등으로 크게 나누어 9개 문항을 조사·분석하였다.

### 1)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인지

#### (1) 북한에 대한 관심도와 분야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와 관심 분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북한의 어느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14>, <표 15>와 같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8%만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학생이 많다는 점은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나, 통일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통일의 시작은 북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통일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50.7%)들에 비해서 여학생(31%)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30.4%)이 다른 시·군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관심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생활 모습 40.4%, 북한의 문화 예술 23.4%, 북한의 체제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중학생들은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높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 $p < .01$ ), 남녀 학생 모두 북한의 생활 모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역별 학생들의 반응 역시 시·군 지역 학생들이 모두가 북한의 생활 모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14>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인 \ 항목		항목					계	$\chi^2$	df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26 (11.4)	90 (39.3)	68 (29.7)	26 (11.4)	19 (8.3)	229 (100.0)	25.237	4	*** .000
	여	8 (3.4)	64 (27.6)	85 (36.6)	53 (22.8)	22 (9.5)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14 (6.3)	78 (35.1)	71 (32.0)	37 (16.7)	22 (9.9)	222 (100.0)	9.051	12	.699
	서귀포시	5 (6.3)	19 (24.1)	32 (40.5)	15 (19.0)	8 (10.1)	79 (100.0)			
	남제주군	7 (8.8)	31 (38.8)	25 (31.3)	14 (17.5)	3 (3.8)	80 (100.0)			
	북제주군	8 (10.0)	26 (32.5)	25 (31.3)	13 (16.3)	8 (10.0)	80 (100.0)			
합계		34 (7.4)	154 (33.4)	153 (33.2)	79 (17.1)	41 (8.9)	461 (100.0)			



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p<.01), 지역별로는 제주도 지역 학생들이 다른 시·군 학생들에 비해서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지식 습득의 경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의 학생들이 언론 매체라고 응답하고 있고, 학교 교육을 통해 북한 관련 지식을 얻는 학생들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학교의 통일교육이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의 창구로서 언론 매체에 비해서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실상에 대한 통일교육의 부재 현상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차이가 별로 없으며,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p<.01), 북제주군 지역 학생들이 다른 시·군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교육에서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을 많이 얻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16> 북한의 실상에 관한 인지도

변인		항목					합계	x <sup>2</sup>	df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9 (3.9)	58 (25.3)	79 (34.5)	65 (28.4)	18 (7.9)	229 (100.0)	18.673	4	** .001
	여		38 (16.5)	111 (48.1)	66 (28.6)	16 (6.9)	231 (100.0)			
지역별	제주시	3 (1.4)	41 (18.6)	90 (40.7)	63 (28.5)	24 (10.9)	221 (100.0)	13.047	12	.366
	서귀포시	2 (2.5)	17 (21.5)	33 (41.8)	26 (32.9)	1 (1.3)	79 (100.0)			
	남제주군	2 (2.5)	16 (20.0)	37 (46.3)	21 (26.3)	4 (5.0)	80 (100.0)			
	북제주군	2 (2.5)	22 (27.5)	30 (37.5)	21 (26.3)	5 (6.3)	80 (100.0)			
합계		9 (2.0)	96 (20.9)	190 (41.3)	131 (28.5)	34 (7.4)	460 (100.0)			

(\*\* p<.01)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표 17>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 경로

변인		항목								계	x <sup>2</sup>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별	남	29 (12.7)	147 (64.2)	6 (2.6)	4 (1.7)	6 (2.6)	13 (5.7)	11 (4.8)	13 (5.7)	229 (100.0)	11.982	7	.101
	여	35 (15.3)	160 (69.9)	1 (0.4)	2 (0.9)		12 (5.2)	9 (3.9)	10 (4.4)	229 (100.0)			
지역별	제주시	21 (9.5)	160 (72.4)	3 (1.4)	5 (2.3)	4 (1.8)	13 (5.9)	4 (1.8)	11 (5.0)	221 (100.0)	42.708	21	** .003
	서귀포시	12 (15.6)	54 (70.1)			1 (1.3)	6 (7.8)	1 (1.3)	3 (3.9)	77 (100.0)			
	남제주군	11 (13.8)	55 (68.8)	1 (1.3)		1 (1.3)	2 (2.5)	7 (8.8)	3 (3.8)	80 (100.0)			
	북제주군	20 (25.0)	38 (47.5)	3 (3.8)	1 (1.3)		4 (5.0)	8 (10.0)	6 (7.5)	80 (100.0)			
합계		64 (14.0)	307 (67.0)	7 (1.5)	6 (1.3)	6 (1.3)	25 (5.5)	20 (4.4)	23 (5.0)	458 (100.0)			

(\*\* p<.01)

- ① 학교교육      ② 언론매체      ③ 사회단체      ④ 부모, 형제, 친구  
 ⑤ 종교단체      ⑥ 교과서 및 관련 서적      ⑦ 인터넷      ⑧ 기타

## 2) 북한에 대한 태도



### (1)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반응의 결과는 <표 18>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90.5%의 학생들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20.0%) 또는 서로 협력해야 할 대상(70.5%)으로 인식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 거주지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산북지역 학생들보다는 산남지역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이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층에 대한 평가와

일반 주민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두 계층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의 학생과 주민을 비롯한 보통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문항들에 대한 반응결과는 <표 19>, <표 20>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31.7%가 북한의 지도층을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고 응답해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7.4%),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16.5%)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들의 견해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로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들(41.7%)이 여학생들(22%)보다 북한 지도층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p < .001$ ),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남제주군 학생들(41.3%)이 다른 시·군 지역 학생들보다 북한 지도층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지도층에 대한 평가와는 반대로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학생과 주민을 비롯한 보통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예상한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67.4%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19>와 <표 20>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일반 주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북한의 지도층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중학생들이 북한의 지도층과 일반 주민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향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생들이 군 지역 학생들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8> 북한에 대한 인식

변인		항목				합계	x <sup>2</sup>	df	p
		①	②	③	④				
성별	남	42 (18.3)	163 (71.2)	8 (3.5)	16 (7.0)	229 (100.0)	3.113	3	.375
	여	50 (21.6)	162 (69.8)	11 (4.7)	9 (3.9)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42 (18.9)	151 (68.0)	12 (5.4)	17 (7.7)	222 (100.0)	10.830	9	.288
	서귀포시	13 (16.5)	61 (77.2)	3 (3.8)	2 (2.5)	79 (100.0)			
	남제주군	19 (23.8)	59 (73.8)	1 (1.3)	1 (1.3)	80 (100.0)			
	북제주군	18 (22.5)	54 (67.5)	3 (3.8)	5 (6.3)	80 (100.0)			
합계		92 (20.0)	325 (70.5)	19 (4.1)	25 (5.4)	461 (100.0)			

① 도와주어야 할 대상

② 서로 협력해야 할 대상

③ 경쟁 대상

④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상

<표 19>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견해

변인		항목				합계	x <sup>2</sup>	df	p
		①	②	③	④				
성별	남	95 (41.7)	18 (7.9)	39 (17.1)	76 (33.3)	228 (100.0)	26.653	3	*** .000
	여	51 (22.0)	16 (6.9)	37 (15.9)	128 (55.2)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68 (30.8)	18 (8.1)	38 (17.2)	97 (43.9)	221 (100.0)	8.355	9	.499
	서귀포시	25 (31.6)	4 (5.1)	15 (19.0)	35 (44.3)	79 (100.0)			
	남제주군	33 (41.3)	6 (7.5)	7 (8.8)	34 (42.5)	80 (100.0)			
	북제주군	20 (25.0)	6 (7.5)	16 (20.0)	38 (47.5)	80 (100.0)			
합계		146 (31.7)	34 (7.4)	76 (16.5)	204 (44.3)	460 (100.0)			

(\*\*\* p<.001)

①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

②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

③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

④ 생각해 보지 않았다.

<표 20> 북한의 학생과 주민 등 보통 사람에 대한 견해

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계	$\chi^2$	df	p
성별	남		161 (70.6)	13 (5.7)	11 (4.8)	43 (18.9)	228 (100.0)	6.022	3	.111
	여		149 (64.2)	13 (5.6)	6 (2.6)	64 (27.6)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140 (63.1)	16 (7.2)	9 (4.1)	57 (25.7)	222 (100.0)	10.435	9	.316
	서귀포시		62 (78.5)	2 (2.5)	4 (5.1)	11 (13.9)	79 (100.0)			
	남제주군		57 (71.3)	4 (5.0)	1 (1.3)	18 (22.5)	80 (100.0)			
	북제주군		51 (64.6)	4 (5.1)	3 (3.8)	21 (26.6)	79 (100.0)			
	합계		310 (67.4)	26 (5.7)	17 (3.7)	107 (23.3)	460 (100.0)			

- ①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                      ②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  
 ③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                                ④ 생각해 보지 않았다.

(2)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정도

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남북한 주민이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질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0점, 가장 강한 상태를 10점이라고 할 때, 몇 점을 주겠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47%가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정도를 1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있고, 다음은 10점(10.7%), 7점(10.5%), 6점(6.6%)의 순으로 비교적 동질성의 수준이 높으리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동질성의 정도를 3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한 경우가 6.3% 0점이 4.6%, 4점이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중학생들의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설문 조사에 응답한 것과 실제 학생들의 피부로 느끼는 동질성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해도, 중학생들이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정도를 높게 평가한 것은, 앞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는 통일 후 남북 주민들이 민족 통합을 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질성 정도를 6점 이상으로 평가하는 중학생들의 비율(35.4%)이 4점 이하로 평가하는 중학생들의 비율(17.5%)보다 월등히 높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정도를 느끼는 정도가 강하고, 지역별로는 남제주군 지역 학생들이 다른 시·군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에 대한 평가

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합계	x <sup>2</sup>	df	p
		0	1	2	3	4	5	6	7	8	9	11				
성별	남	10 4.4	3 1.3	6 2.7	16 7.1	5 2.2	91 40.3	15 6.6	27 11.9	17 7.5	3 1.3	33 14.6	226 100.0	3.94	2	.139
	여	11 4.8	6 2.6	4 1.7	13 5.6	6 2.6	124 53.7	15 6.5	21 9.1	12 5.2	3 1.3	16 6.9	231 100.0			
지역별	제주	11 5.0	6 3.0	3 1.4	16 7.2	10 4.5	101 43.7	13 5.8	20 9.0	13 5.9	1 0.5	27 12.2	221 100.0	4.49	6	.611
	서귀	2 2.5	2 2.5	3 3.8	6 7.6	1 1.0	41 51.9	7 8.9	6 7.6	5 6.3	1 1.0	5 6.3	79 100.0			
	남군	3 3.8		1 1.0	5 6.4		36 46.2	4 5.1	11 14.1	7 9.0	1 1.0	10 12.8	78 100.0			
	북군	5 6.3	1 1.0	3 3.8	2 2.5		37 46.8	6 7.6	11 13.9	4 5.1	3 3.8	7 8.9	79 100.0			
합계		21 4.6	9 2.0	10 2.2	29 6.3	11 2.4	215 47.0	30 6.6	48 10.5	29 6.3	6 1.3	49 10.7	457 100.0			

(3)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중학생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22>과 같다.

이 번 질문지 조사에서 중학생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

책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43.8%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비율은 16.1%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북 포용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북한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 통일을 이루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중학생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 조사대상 남학생들의 52.4%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그 비율이 35.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제주시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대북 포용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변인 \ 항목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df	p
성별	남	26 (11.4)	94 (41.0)	76 (33.2)	20 (8.7)	13 (5.7)	229 (100.0)	17.495	4	**.002
	여	11 (4.7)	71 (30.6)	109 (47.0)	19 (8.2)	22 (9.5)	232 (100.0)			
지역별	제주시	19 (8.6)	74 (33.3)	84 (37.8)	27 (12.2)	18 (8.1)	222 (100.0)	18.618	12	.098
	서귀포시	3 (3.8)	33 (41.8)	33 (41.8)	5 (6.3)	5 (6.3)	79 (100.0)			
	남제주군	10 (12.5)	25 (31.3)	37 (46.3)	5 (6.3)	3 (3.8)	80 (100.0)			
	북제주군	5 (6.3)	33 (41.3)	31 (38.8)	2 (2.5)	9 (11.3)	80 (100.0)			
합계		37 (8.0)	165 (35.8)	185 (40.1)	39 (8.5)	35 (7.6)	461 (100.0)			

(\*\*  $p < .01$ )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바람직하지 않다.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3.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남북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 하면 통일교육은 통일의 가장 큰 추진력인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게 할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통일의 후유증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민족 통합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학생들의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효과와 실태,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크게 나누어 9개의 문항을 조사·분석하였다.

#### 1) 통일교육의 효과와 실태

##### (1) 통일교육의 효과와 만족도

학교에서 배운 통일교육을 받은 후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후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수업에 만족합니까?”,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불만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문항들에 대한 반응결과는 <표 23>, <표 24>, <표 25>와 같다.

통일교육의 효과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14.7%만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후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4.7%의 학생들이 단지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응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 관련 교육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견해는 그 동안 학교에서 실시되어 왔던 통일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통일교육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제주도 지역 학생들이 다른 시·군 지역 학생들에 비해 통일교육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8.1%만이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 뿐, 33.5%의 학생들은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이 만족하고 있는 학생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통일교육의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p < .05$ ). 지역별로는 남제주군 지역 학생들이 다른 시·군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교 통일교육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p < .001$ ).

통일교육에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불만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1.6%가 자료가 부족하다, 30.9%가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은 정부가 각종 자료를 독점해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접할 수 있는 자료가 기껏해야 교과서 정도밖에 없어, 최근의 생생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에 학생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자료가 부족해 수업에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 외에 통일과 북한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의 맨 나중에 편제된 것과, 통일 관련 내용이 각종 입시에서 배제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평가를 미루어 볼 때 교과서내용의 재구성 과 다각적인 통일 관련 내용을 입시에 반영하는 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자료의 부족(30.0%)을, 여학생들은 학생들의 관심 부족(37.8%)을 학교 통일교육의 가장 큰 불만족의 이유로 꼽고 있다. 지역별로는 산북지역 학생들은 학생들의 관심 부족을, 산남지역 학생들은 자





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범교과 차원에서 통일을 논의할 때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의 수업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56.3%가 교과서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의 조사 방식(5.3%)이나 학생 중심의 토론 방식(6.4%) 등 학생 중심의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통일 관련 수업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교과서 위주의 교사 설명 방식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47.6%에 불과한 반면에 여학생들은 64.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p<.01$ ). 지역별로는 교과서 위주의 교사설명 방식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시 지역 학생들보다는 군 지역 학생들이 비율이 낮아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1$ ).

<표 26> 교과별 통일교육의 실태

과목 \ 항목	①	②	③	④	합계
국어	4 (0.9)	104 (23.2)	194 (43.3)	146 (32.6)	448 (100.0)
영어	2 (0.5)	19 (4.2)	154 (34.1)	276 (61.2)	451 (100.0)
수학	1 (0.2)	7 (1.6)	132 (29.6)	306 (68.6)	446 (100.0)
사회	36 (7.9)	254 (55.7)	122 (26.8)	44 (9.6)	456 (100.0)
도덕	181 (39.6)	261 (57.1)	12 (2.6)	3 (0.7)	457 (100.0)
예체능	0 (0)	21 (4.6)	117 (25.9)	314 (69.5)	452 (100.0)

① 자주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거의 하지 않는다

④ 전혀 하지 않는다

<표 27> 학교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수업의 방식

변인		항목						계	x <sup>2</sup>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108 (47.6)	20 (8.8)	18 (7.9)	20 (8.8)	35 (15.4)	26 (11.5)	227 (100.0)	19.377	5	** .002
	여아	148 (64.9)	14 (6.1)	6 (2.6)	9 (3.9)	34 (14.9)	17 (7.5)	228 (100.0)			
지역별	제주시	133 (60.7)	19 (8.7)	9 (4.1)	12 (5.5)	26 (11.9)	20 (9.1)	219 (100.0)	39.440	15	** .001
	서귀포시	48 (62.3)	4 (5.2)	9 (11.7)	5 (6.5)	6 (7.8)	5 (6.5)	77 (100.0)			
	남제주군	45 (56.3)	6 (7.5)	4 (5.0)	4 (5.0)	11 (13.8)	10 (12.5)	80 (100.0)			
	북제주군	30 (38.0)	5 (6.3)	2 (2.5)	8 (10.1)	26 (32.9)	8 (10.1)	79 (100.0)			
합계		256 (56.3)	34 (7.5)	24 (5.3)	29 (6.4)	69 (15.2)	43 (9.5)	455 (100.0)			

(\*\* p<.01)

- ① 교과서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
- ② 신문, 잡지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
- ③ 학생들의 조사 발표 방식
- ④ 학생 중심의 토론 방식
- ⑤ 컴퓨터, TV, 비디오 등의 매체 활용 방식
- ⑥ 기타

## 2)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 (1) 통일교육의 방향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수업 부분과 과외 활동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통한 통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28>, <표 29> 과 같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한 통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5.7%가 컴퓨터, TV, 비디오 등의 매체 활용 방식의 수업을 원하고 있고, 다음은 학생 중심의 토론 방식의 수업(1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견해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학교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수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컴퓨터 등의 매체의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은 컴퓨터 등의 매체 활용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고 있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조사 발표라든가 토론 방식 등 학생 중심의 수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생들이 군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0%의 학생들이 견학 등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생 수련회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24.5%), 클럽활동을 통한 통일교육(19.6%),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17.7%), 교내 행사를 통한 통일교육(11.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통일 관련 교내 행사를 통한 통일교육을 비교적 낮게 선호하고 있는 요인은,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시대의 걸맞은 통일 관련 학교 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과거의 반공·안보교육의 전형적인 프로그램들이 아직도 채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통일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26%가 수련회를 통한 통일교육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 반면, 여학생들은 28.3%가 견학 등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이 효과가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한 통일교육이 효과가 높다고 한 반면, 다른 시·군 지역 학생들은 견학 등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 (2)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강조할 점

앞으로 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과 통일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학교 통일교육에서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측면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라는 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문항들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30>, <표 31>과 같다.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43.7%가 학생들의 참여의식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이 다양한 교육 자료(24.3%), 교육 시설(18.5%)의 순이었다. 중학생들의 이러한 견해를 볼 때, 통일교육의 성공의 관건은 어떻게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진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 $p<.001$ ), 남녀 학생 공히 참여의식이라고 응답했지만 남학생들(34.5%)에 비해서 여학생들(52.8%)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48.1%)이 다른 시·군 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의식이라고 응답한 반응이 더 높았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2%가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응답했고, 그 다음이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32.0%),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아는 것(15.2%) 순이었다. 통일교육에 있어 수요자의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 통일의 필요성을 내면화시키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 변인별 반응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응답률이 34.9%로, 여학생들의 29.4%의 여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은 여학생들이 35.5%로, 남학생들의 28.4%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 학생들은 군 지역 학생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30>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변인		항목						계	x <sup>2</sup>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51 (22.3)	57 (24.9)	12 (5.2)	79 (34.5)	14 (6.1)	16 (7.0)	229 (100.0)	29.94	5	*** .000
	여	61 (26.4)	28 (12.1)	9 (3.9)	122 (52.8)	7 (3.0)	4 (1.7)	231 (100.0)			
지역별	제주시	58 (26.2)	38 (17.2)	7 (3.2)	98 (44.3)	12 (5.4)	8 (3.6)	221 (100.0)	9.036	15	.876
	서귀포시	17 (21.5)	12 (15.2)	5 (6.3)	38 (48.1)	3 (3.8)	4 (5.1)	79 (100.0)			
	남제주군	16 (20.0)	19 (23.8)	3 (3.8)	34 (42.5)	3 (3.8)	5 (6.3)	80 (100.0)			
	북제주군	21 (26.3)	16 (20.0)	6 (7.5)	31 (38.8)	3 (3.8)	3 (3.8)	80 (100.0)			
합계		112 (24.3)	85 (18.5)	21 (4.6)	201 (43.7)	21 (4.6)	20 (4.3)	460 (100.0)			

(\*\*\* p<.001)

- ① 다양한 교육 자료                      ② 교육시설(컴퓨터 확보 등)                      ③ 전문강사의 확보  
 ④ 학생들의 참여의식                      ⑤ 학교와 선생님의 의지                      ⑥ 기타

<표 31> 학교 통일교육에서의 강조할 점

변인		항목						계	x <sup>2</sup>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45 (19.7)	80 (34.9)	65 (28.4)	25 (10.9)	13 (5.7)	1 (0.4)	229 (100.0)	15.302	5	.009
	여	25 (10.8)	68 (29.4)	82 (35.5)	28 (12.1)	28 (12.1)		231 (100.0)			
지역별	제주시	33 (14.9)	66 (29.9)	72 (32.6)	25 (11.3)	25 (11.3)		221 (100.0)	11.403	15	.724
	서귀포시	12 (15.2)	26 (32.9)	27 (34.2)	11 (13.9)	3 (3.8)		79 (100.0)			
	남제주군	14 (17.5)	29 (36.3)	24 (30.0)	8 (10.0)	5 (6.3)		80 (100.0)			
	북제주군	11 (13.8)	27 (33.8)	24 (30.0)	9 (11.3)	8 (10.0)	1 (1.3)	80 (100.0)			
합계		70 (15.2)	148 (32.2)	147 (32.0)	53 (11.5)	41 (8.9)	1 (0.2)	460 (100.0)			

- ①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아는 것                      ②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하는 것  
 ③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                      ④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⑤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                      ⑥ 기타

## 4.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문제점

### 1) 통일의식의 경향과 문제점

지금까지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의식과 북한에 관한 의식 그리고 통일교육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의 실태 조사를 종합하면서 통일의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의식의 문제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 중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되기 전에 조사했던 통일의식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앞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국가의 체제와 관련해 제주도 중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이 공산주의 체제나 어떤 방식의 체제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감상적 통일론을 경계하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통일 이후의 삶의 변화와 관련해 제주도 중학생들은 삶의 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통일 이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학생들은 통일을 개인의 행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셋째, 통일의 장애요인과 선결 과제에 대해 제주도 중학생들은 다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민족 내부에서 찾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견

해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일문제가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구조의 이중성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제주도 중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서도 ‘싸워야 할 적’에서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중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주도 중학생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다. 전체 응답자의 40.8%만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해 무관심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는 통일 후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통일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와 관련해 제주도 중학생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7%가 통일교육을 단지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응답해,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학생들의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인지 경로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7%가 언론 매체를 통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중학교의 통일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과목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형편이며 그 외 과목에서는 통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이 부실화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주도 중학생들은 다양한 현대 교수 매체의 활용과 학생 중심의 수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

의 이러한 견해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과서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과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차후 통일교육은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의 수업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제주도 중학생들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의식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교육의 성공의 열쇠는 결국 어떻게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도 중학생들은 북한 주민이 우리와 동족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과,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통일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통일의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추론한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의 문제점은 첫째, 제주도 중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둘째,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중학생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넷째, 많은 학생들이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중학교의 통일교육은 도덕,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과목에서는 통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한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보다는 교과서 위주의 교사 설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통일의식 형성의 중심에는 기존의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항과 결론에서는 중학생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추론하면서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 2) 통일교육의 문제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

지를 함양시키고, 통일 이후의 민족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할 줄 알고,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을 가지며,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을 마음 속 깊이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 또한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현실은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건전한 통일의식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의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통일교육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의 문제점은 결국은 기존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제주도 중학생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존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통일의식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추론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목표나 접근방식에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접근을 해왔다는 점이다. 즉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동포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거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필요하다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접근으로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현실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

다시 말해 종래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통일에 열망과 의지를 중요시하는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을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서 이해하고 포용하는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sup>30)</sup> 그 결과 학생들은 북한에 대

한 관심이 미미하고,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학교 통일교육은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에서 민족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밀도 있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교과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은 '도덕'같은 특정 교과목에서만 편중되어 실시됨으로써<sup>31)</sup>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나아가 중학교 도덕 교과의 통일 관련 부분도 2학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편제되어 있어, 학년말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심지어는 생략해 버리는 등 실질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 교과의 시간수가 1시간 감소함으로써 심도 있는 통일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통일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기존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는 유리된 정치적인 이념과 체제, 사상과 제도를 주로 다루어 학생들이 식상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즉 통일교육이 남북한이 이념과 체제 비교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신념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결국 사회·문화적인 통합이나 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한 논의를 상대적으로 경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시각만 심어주고,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이질감만 조장시킨 면이 없지 않다. 그 결과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참다운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고,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무관심 및 부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만들었다. 한편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부족한 결과, 통일문제의 북

---

30) 상계서, p.20.

31) 박찬석 외(2000), 「통일교육론」, 백의, p.53.

합성과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선적이고 편향된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수업 방법, 교수·학습 자료에 문제가 있다. 수업 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주로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가 설명해 주는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보다는 피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탐구를 통한 학습보다는 암기와 기억에 의존하는 학습이 중심이 되면서, 통일 환경이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이 제대로 함양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통일 관련 교수·학습 자료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홍보 부족으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남북한 관계나 북한에 대한 교육에서는 생생한 영상 자료와 시사성이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도,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제주도 중학생들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불만족하고 있는 이유로 자료의 부족을 꼽고 있어, 다양하고 시사성이 있는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별활동, 현장학습, 학교행사, 수련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과외 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와 통일교육 담당자들과 일반 교사들의 소신과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한 체험적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일반 교사들의 소신과 전문성 부족 문제 및 학교당국의 의지 문제이다. 일부 뜻 있는 교사들에 의해 소신 있고 객관적인 통일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의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명료한 지도 방법을 지니지 못한 채, 입시 경향에 맞춰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것<sup>32)</sup>이 통일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방법의 통일교육은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의 관건은 학교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학교장이 뚜렷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통일교육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느냐가 통일교육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도덕 교과와 시간수가 감소함에 따라 심도 있는 통일교육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파악한 바로는 재량활동 시간에 통일교육을 편성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통일교육의 현장 교육이나 체험 학습도 학교측의 의지 부족과 일반 교사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당연히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인지 정도를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평가에 주요한 척도로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통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심에서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통일교육의 문제점이 결국은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형성하게 했던 만큼, 중학생들의 바람직하고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결론에서는 통일교육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통일의식 조사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했던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

32) 이춘수(1999), “중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66.

## V. 결론 :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통일환경 속에서 제주도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의 현주소를 면밀히 분석해, 바람직하지 못한 통일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기존의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통일환경에 부응하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통일의식의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00년 6월 이후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의 통일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고, 남북간 대화 채널이 정례화가 되면서 남북 관계의 주요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립과 갈등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면서 전후 세대인 중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멀게만 느껴졌던, 그리고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만 여겨졌던 통일이 결코 먼 날의 일만은 아닌, 남의 나라의 일만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반영하고 바람직한 통일의식의 형성을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접근 방향, 내용, 그리고 방법상의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교육의 접근 방향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 통일교육은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갖는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얻는 이득과 혜택을 각종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고양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예상해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들의 통일문제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한 요인은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북한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북한과의 통일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학생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통일교육이 규범적 차원만 강조되는 당위적인 접근을 강조한 결과, 통일문제를 ‘나’ 또는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통일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통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요, ‘나의 장래’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사회가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우리들의 현실과 장래에 많은 이득과 혜택이 있으며, 나아가 한민족의 미래에 역사적인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의 제시를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통일교육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북한 및 통일 문제를 각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하는 범교과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교과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본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내용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으로 편성을 함으로써 통일교육이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더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도덕 교과의 시간수가 한 시간 줄어들면서 통일교육의 양적인 축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통일교육의 질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통일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교과 특성에 알맞게 교과 내용을 편성해 입체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적극 고취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즉 남북한 상호 불신과 적대감 해소를 통해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화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장애요인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의 해소를 통해서만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 화합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고,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의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참다운 민족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문제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구조의 이중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주변 강대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일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를 학생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의 통일의식 조사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도 40.8%만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한 주요 요인은 종래의 통일교육이 이념과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거나, 그것을 무비관적으로 수용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은 물론 주민과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삶과는 얼마나 달라져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와 같은 점이 여전히 남

아 있는지를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문화 예술 등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활 문화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을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방법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통일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에 기초한 열린교육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즉 다양한 주장과 개방적인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 사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까지 제주도 중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대다수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보다는 피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탐구를 통한 학습보다는 암기를 통한 학습이 중심이 되면서 통일교육의 흥미가 유발되지 못하고, 통일 및 북한 관련 수업에 불만족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보다 능동적이고 살아 있는 수업을 통해 통일교육의 만족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적용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 주제를 교과서의 내용에 고정시킬 필요 없이 학생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스스로 집단적인 토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학습 자료를 학생들이 스스로 수집하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생 중심의 수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행사, 클럽활동, 재량 활동, 체험 학습 등 과외 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학교 행사를 통한 통일교육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행사는 학생 수준에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통일문제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 관련 학교 행사로는 통일가요제, 통일 축제, 통일 캠프, 통일 골든 벨 행사 등을 기

획할 수 있다.

또한 클럽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일상적인 관심사로 끌어들이므로써, 일상 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관련 시사반, 통일반, 신문반, 방송반, 영화 감상반, 정보사냥반 등의 클럽활동 부서를 통해 통일관련 주제를 반영시켜 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급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은 범교과 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제 탐구활동에서 통일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통일과 관련되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의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중학생들은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해 학교 통일교육은 지역의 통일 학습관을 활용하거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을 담고 있는 장소로 현장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수학 여행 때 분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문점과 통일전망대의 견학을 통한 체험 학습은 분단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족의 고통이 나의 문제로 전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의 의지와 통일교육 담당 교사 뿐 아니라 일반 교사들의 사명감과 열정 또한 중요하다. 교사의 열의와 학교측의 뒷받침이 없으면 통일교육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통일교육의 효과는 단지 메아리로 사라져 버릴 뿐이다. 특히 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일교육 담당 교사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교수·학습 과정인 수업을 통해 구현하지 못한다면 통일교육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일 및 북한 관련 문제가 평가에 주요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입시에 통일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통일 관련 내용이 고입 선발고사나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 최소한 3문제 이상 출제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무릇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듯이 통일이 라는 민족사적 과제의 해결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아울러 북한 주민에 대해서 항상 동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의 대상을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국한시켜 조사·분석하였기 때문에 제주도 중학생 전체의 통일의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의식은 통일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서서히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참여 정부에 들어와 북한의 핵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통일환경의 냉기류가 조성되고, 그에 따라 남북 관계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 박찬석 외(2000), 「통일교육론」, 백의.
- 울산광역시교육청(2002), 「2002 학교 통일교육의 실제」, 울산광역시교육청.
- 이상우(1984), “민족통일의 과제”,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 이정희(1997), 「민족 통일론」, 형설출판사.
- 통일교육원(1999),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 통일부(2002),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 통일부(2001), 「통일교육」, 통일부.
- 통일부(1999),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통일부.
- 한국교육개발원(1999), 「통일교육의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_\_\_\_\_ (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 2. 학위논문

- 강정윤(1998),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경(1999), “평화통일에 대비한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인숙(2000), “통일을 대비한 초등학교 열린 통일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석용(1999), “통일교육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민영(2000), “중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복(1999), “중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미진(2001),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

교 교육대학원.

- 전형준(2000),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승균(1996), “제주도 중학생의 통일의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정우(1999),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채문기(1998), “전남지역 초·중학생들의 통일의식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지연(2000), “지구촌 시대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세희(2000),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통일의식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3. 학술지

- 고성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초·중·고 통일교육에 대한 워크숍 주제 발표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
- 김영민(2002),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통일부 주최 제5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토론자 발표문, 통일부.
- 김정서(2002),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2002 초·중등 통일교육 직무연수」 연수 교재, 탐라교육원.
- 이현근(2000), “통일의식 변화 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교육·홍보·교류·기타(Ⅲ)」, 통일부.
- 이황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사대논문집』 제38집, 부산대학교.
- 임용경(1997),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방향”, 인천교육대학교 통일교육문제연구소.
- 임현모, 장주학,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제16권 제2호(2001. 11),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회.
- 차우규(2002),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제5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주제 발표문, 통일부.

- 최병모(2001), “통일교육의 체계적 접근과 운영방안”, 「시민교육연구」 제32집, 한국 사회과 교육연구학회.
- \_\_\_\_\_ (2000),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 방안”, 「새마을 연구」 제8권, 한국교원대학교.
- 최현섭(1992), “사회 문화적 시각에서 본 통일교육”, 「남북한 교류협력의 오늘과 내일」,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 한만길(2001),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예술과 교육」 7, 한국교원대 예술연구소.
- \_\_\_\_\_ (2000), “학생들의 통일관과 통일교육의 과제”, 「서울교육」 제42권 제1호,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 한석지(1994),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9집, 제주대학교.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Middle School**

- Focusing on the awareness for unifi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

Kim, Soonhyup

Major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eokji

This study is aimed to seek the improvement plans of unification education to build up students' desirable thoughts of unifi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awareness for unification in recent radically changing environment for Korean unification. For this study, 480 middle school third graders in Jeju have been asked and their answers are analysed through SPSS WIN program. The result can be analyzed into three fields.

First, in the survey of the awareness for unification issues, about half of the students have positive interest in need of unification and most of them want gradual and peaceful unification with the consent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bout the future of unified Korea, the students have a firm belief in democratic system, but they have anxious opinions about the quality of life after unifica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Second, in the survey of awareness for North Korea, the students have rather low interest in the overall situations of North Korea and show very high interest in the parts related to the everyday life. They have positive attitude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and homogeneity of South and North Koreans, and furthermore they agree to the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rd, in the survey of attitude to unification education, the students have negative opin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ongoing unification education. They have little experience of unification education outside moral studies and in that class even textbooks and teacher's explanations are the only method of teaching. However, the students prefer the student-centered discussion method using multi-media. To activate the unification education, the students understand very well the importance of their positive participation, and they are fully aware of the nat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and need of unification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improvement plans of unification educ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more concrete and realistic approach to need of unification is recommended. Th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move the focus from the emphasis on what should be to what can be and will be good for them after the unification. Besides, unification issues should be dealt in all subjects by appropriate design for each subject.

Second, the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about the life culture which can be easily understood in students' everyday life. Specific emphasis should be put on the nat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of two Koreas for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of opinions or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or after the unification. And students can build up balanced thoughts about the unification as not only a national problem but an international issue.

Third, about the teaching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various and open method should be applied to build up balanced and rational thinking abilities. Multimedia and the student-centered teaching method along with extra activities are recommendable for activating the unification education.

Last, as the successful unification education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teachers, teachers should be the experts in the unification issue and the support of schools is also the key to success.



- \_\_\_② 통일을 할 필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4번으로 가십시오.  
 \_\_\_③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_\_\_④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_\_\_① 원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_\_\_② 민족의 번영을 위해  
 \_\_\_③ 북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_\_\_④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_\_\_⑤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주기 위해서      \_\_\_⑥ 기타

4.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일을 할 필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_\_\_① 의사 소통이 불편하다.  
 \_\_\_② 남북한의 경제적, 사상적 차이로 잦은 갈등이 일어난다.  
 \_\_\_③ 북한 지역의 경제적 지원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_\_\_④ 국가 경쟁력 약화로 경제가 침체한다.  
 \_\_\_⑤ 통일이 되면 사회적으로 불안정(불평등 심화, 범죄 증가)해진다.

5.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합의 통일      \_\_\_② 일방적인 방식의 흡수통일  
 \_\_\_③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      \_\_\_④ 국제적 합의(유엔)에 의한 통일  
 \_\_\_⑤ 잘 모르겠다.

6. 통일된 국가의 체제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① 자유민주주의 체제      \_\_\_② 공산주의 체제  
 \_\_\_③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혼합 체제      \_\_\_④ 어느 체제도 무방

7.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_\_\_① 매우 나아질 것이다.      \_\_\_② 대체로 나아질 것이다.  
 \_\_\_③ 잘 모르겠다.      \_\_\_④ 대체로 어려워 질 것이다.  
 \_\_\_⑤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8. 통일 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① 세금이 많아질 것이다.                    \_\_\_②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을 것이다.  
 \_\_\_③ 새로운 지역감정이 생길 것이다.       \_\_\_④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_\_\_⑤ 기타

9. 여러분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            번)

- |                   |                     |
|-------------------|---------------------|
| ① 남북한의 이념과 사상의 대립 | ②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대립    |
| ③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 ④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열의 부족 |
| ⑤ 남북의 경제적 차이      | ⑥ 주한 미군             |
| ⑦ 남북간의 여러 가지 다른 점 | ⑧ 북한 지도층의 태도        |
| ⑨ 남한 지도층의 태도      |                     |

10.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① 남북의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                    \_\_\_② 이산가족의 상호 방문  
 \_\_\_③ 주변 강대국에 협조 요청                                    \_\_\_④ 북한의 개방  
 \_\_\_⑤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방안 마련                \_\_\_⑥ 주한 미군의 철수

※. 다음은 북한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려는 문항입니다.

11.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 \_\_\_① 매우 관심이 있다.                    \_\_\_② 관심이 있다.                    \_\_\_③ 그저 그렇다.  
 \_\_\_④ 관심 없다.                                \_\_\_⑤ 매우 관심이 없다.

12.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만)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북한의 어느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까?

- \_\_\_① 북한의 체제                    \_\_\_② 북한의 문화 예술                    \_\_\_③ 북한의 생활모습  
 \_\_\_④ 북한의 교육                    \_\_\_⑤ 기타

13. 여러분은 북한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_\_\_① 아주 잘 알고 있다.                    \_\_\_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잘 모르고 있다.                    \_\_\_⑤ 전혀 모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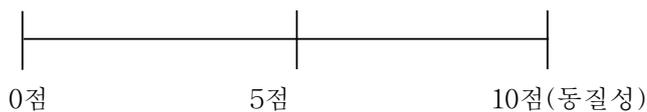
14. 여러분은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_\_\_ ① 학교교육                      \_\_\_ ② 언론매체                      \_\_\_ ③ 사회단체  
 \_\_\_ ④ 부모, 형제, 친구              \_\_\_ ⑤ 종교단체                      \_\_\_ ⑥ 교과서 및 관련 서적  
 \_\_\_ ⑦ 인터넷                          \_\_\_ ⑧ 기타

15.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 ① 도와주어야 할 대상                      \_\_\_ ② 서로 협력해야 할 대상  
 \_\_\_ ③ 경쟁 대상                                  \_\_\_ ④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상

16. 북한의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 ①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  
 \_\_\_ ②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  
 \_\_\_ ③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  
 \_\_\_ ④ 생각해 보지 않았다.

17. 북한의 학생과 주민을 비롯한 보통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 ①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  
 \_\_\_ ②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  
 \_\_\_ ③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  
 \_\_\_ ④ 생각해 보지 않았다.

18. 여러분은 남북한 주민이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질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0점, 가장 강한 상태를 10점이라고 할 때 몇 점을 주겠습니까?



19. 북한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 ① 매우 바람직하다.                      \_\_\_ ② 바람직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바람직하지 않다.                      \_\_\_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다음은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방향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려는 문항입니다.

20.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후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 \_\_\_ ①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_\_\_ ② 원래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  
 \_\_\_ ③ 단지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_\_\_ ④ 원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  
 \_\_\_ ⑤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21.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수업에 만족합니까?

-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만족한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불만족 한다.      \_\_\_ ⑤ 매우 불만족 한다.

22. (통일교육에 불만족하고 있는 경우만)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불만족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시간이 부족하다      \_\_\_ ② 내용이 어렵다  
 \_\_\_ ③ 자료가 부족하다      \_\_\_ ④ 선생님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_\_\_ ⑤ 관심이 부족하다      \_\_\_ ⑥ 기타

23. 각 교과별 통일관련 수업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① 자주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거의 하지 않는다	④ 전혀 하지 않는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예체능				

24. 현재 학교에서 통일 및 북한 관련 수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_\_\_ ① 교과서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      \_\_\_ ② 신문, 잡지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  
 \_\_\_ ③ 학생들의 조사 발표 방식      \_\_\_ ④ 학생 중심의 토론 방식  
 \_\_\_ ⑤ 컴퓨터 등의 매체 활용 방식      \_\_\_ ⑥ 기타

25. 학교에서 수업을 통한 통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 ① 교과서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      \_\_\_ ② 신문, 잡지 중심의 교사 설명 방식  
 \_\_\_ ③ 학생들의 조사 발표 방식      \_\_\_ ④ 학생 중심의 토론 방식

\_\_\_⑤ 컴퓨터 등의 매체 활용 방식    \_\_\_⑥ 기타

26.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① 학생 수련회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_\_\_② 교내 행사를 통한 통일교육  
\_\_\_③ 클럽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_\_\_④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_\_\_⑤ 현장 체험 학습 통한 통일교육  
\_\_\_⑥ 기타

27. 여러분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_\_\_① 다양한 교육 자료                    \_\_\_② 교육시설(컴퓨터 확보 등)  
\_\_\_③ 전문강사의 확보                    \_\_\_④ 학생들의 참여의식  
\_\_\_⑤ 학교와 선생님의 의지                \_\_\_⑥ 기타

28. 앞으로 학교 통일교육에서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측면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_\_\_①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아는 것  
\_\_\_②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느끼게 하는 것  
\_\_\_③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  
\_\_\_④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_\_\_⑤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  
\_\_\_⑥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자신이 해당하는란에 ○표해 주십시오.

29. 나의 성별은?

- \_\_\_① 남자                                    \_\_\_② 여자

30. 내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 \_\_\_① 제주시    \_\_\_② 서귀포시    \_\_\_③ 남제주군    \_\_\_④ 북제주군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